학술교류

제38차 세계사회경제학회 (SASE) 연례 대회 참가기

林玄鎭 會員 (사회학)



I. 프랑스 개관

제38회 세계사회경제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o-Economics: SASE) 연차대회가 프랑스 보르도 (Bordeaux)의 시앙스포 (Sciences Po)에서 2026년 7월 1일~4일 사이 나흘간 열렸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분열을 이겨내기: 후기 (後期) 세계화 질서 아래 갈등과 권력" (Fighting Divisions: Conflict and Power in a Post Globalization Order)이었다. 오늘의 세계질서는 혼탁하고 불안하다. 크고 작은 갈등이 국가, 지역, 세계 차원에서 전쟁, 테러, 분규 형태로 끊이지 않고 있다. 강대국 중심의 국가주의가 판치는 가운데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격차는 늘어나고 있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기후재난, 경기침체, 민생악화, 사회갈등 (세대·젠더·계급)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세계무질서 (world disorder)의 배후에 있는 트럼프와 푸틴은 문명파괴나 핵전쟁이라는 야만적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자·이란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를 넘어 글로벌 노스 대 글로벌 사우스 형태로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의 산지인 보르도는 가론강을 통해 대서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프랑스 남부 최대의 도시이다. 도시의 모양이 초승달을 닮아서 '달의 항구'라고도 불린다. 일찍이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100만의 '작은 파리'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과 건축물을 자랑한다. 백년전쟁 이후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뒤, 식민제국의 관문으로 각종 물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빅토르 위고 (Victor Hugo)는 "베르사유와 엔트워프를 가져라. 우리에겐 보르도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을 정도이다.

프랑스에는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코트 뒤 론, 알자스, 루아르 등 유명한 와인 산지가 여럿 있다. 이 중 보르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넓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 메독, 그라브, 생테 밀리옹, 마르고 등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와인 산지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고급 포도주를 생산한다. 포도주의 삼분의 이 이상이 레드와인이다. 최근에는 단일 품종의 적포도주도 만들기 시작했지만, 과거에는 주로 카바네 소비뇽과 메를로를 섞어 만들었다. 그래서 단일 품종의 부르고뉴 와인이 '몰트 위스키'라면, 여러 포도를 섞은 보르도 와인은 '블렌디드 위스키'에 비유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이원화되어 있다. 프랑스 혁명과 68학생운동의 결과이다. 한국에서 고등교육 개혁을 얘기할 때 주로 프랑스의 평준화된 대학을 모델로 두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고등교육을 프랑스의 전국 대학처럼 제1, 제2, 제3대학 식으로 평준화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학이 평준화뿐만 아니라 이원화된 제도를 함께 갖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 공립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지만, 일반 공립 대학이 아닌, 소수 정예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 (Grandes Écoles)이 따로 있다. 일반 대학은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진학할 수 있다. 반면 그랑제콜

은 고등학교 졸업 후 프레파 (classes preparatoires aux grandes ecoles)와 콩쿠르라는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 입학할 수 있다. 평준화되어 있는 일반 공립대학에서는 형평성을 추구하고, 수월성을 강조하는 그랑제콜은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 프랑스는 교육의 형평성을 중시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을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분할했다. 파리의 경우 1970년부터 고유명칭을 버리고 1-13대학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세계화 이후 작은 규모의 대학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려워 최근에는 여러 대학의 통폐합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 4대학교와 파리 제6대학을 소르본 (Sorbonne)으로 합병하였고, 파리 5대학과 7대학을 시테 (Cité)로 결합하였다. 마크롱 정부에 들어와서는 복지재정의 악화에 따른 대학의 예산감소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일반 대학을 전국적으로 평준화시켰다고 하지만 교육과 연구에서의 지역 격차는 남아 있다. 영미식 대학과의 경쟁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참고할 사항이다.

프랑스는 혁명 이후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시 교회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대학과 달리 소수 정예의 고급 전문기술인 엘리트를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그랑제콜을 도입했다. 그랑제콜은 학문 탐구 위주의 일반 대학이 아니라 국가 운영 실무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일반 대학 위에 그랑제콜이 있다. 프랑스 전국에 대략 250여 개가 있으며 매년 약 2만명을 선발한다. 1인당 투자 예산이 일반 대학보다 몇 배는 높고 입학도 매우 어렵다. 그랑제콜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인문은 사르트르, 푸코, 부르디외, 데리다 등을 배출한 파리 고등사범학교 (ENS), 공학은 에콜 폴리테크니크 (Ecole Popitechnique), 에콜 데 민파리 (Mine Paris), 에콜 데 퐁 파리테크 (Ecole des Ponts ParisTech)에서 가르친다. 경영은 HEC 파리 (HEC Paris), 에섹 (ESSEC), 에스씨피 (ESCP). 행정과 정치는 국립행정학교 (INSP)[1], 정치는 시앙스포 (Science Po)에서 가르친다. 정치대학인 시앙스포는 엄밀한 의미의 전통적 그랑제콜과 대학 사이의 성격을 함께 갖는 독특한 기관이다.

그랑제콜은 프랑스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학벌주의가 강하다. 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탕, 시라크, 올랑드, 마크롱 등의 정치인이나 데리다, 피케티, 아롱, 사르트르 등의 학자를 배출했다. 부르디외가 『국가귀족』(*La Noblesse d'Etat*)에서 그랑제콜은 능력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상층 이상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화자본, 언어능력, 시험준비 등의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적 특권을 재생산하는 제도라고 비판한 맥락과도 상통한다. 특히 프레파와 콩쿠르 제도는 '순수한 실력 경쟁'처럼 보이지만, 그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계급적으로 불평등하다. 그래서 그랑제콜 출신자는 단순히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사회에서 국가, 대기업, 학계, 언론, 문화권력의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상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국립정치학연구재단 (FNSP) 산하의 정치대학은 10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1948년 출범한 시앙스포 (Science Po) 보르도는 그중 하나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당 분야의 세계적인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 (Maurice Duverger)가 1948년부터 1957년까지 총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마크롱 정부의 베르나르 까즈뇌브 (Bernard Cazeneuve) 총리도 보르도 정치대학 출신이다.

1) 기존 ENA가 2022년 폐지되고 INSP로 재편되었다.

II. 제38차 연례회의 프로그램

A. SASE의 역사와 전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경영학, 인류학, 심리학 연구자들의 모임인 SASE는 1989년 에치오니 (A Etzioni)의 주도 아래 미국 캠브리지의 하버드대학교에서 창립되었다. 주류 사회과학의 합리적 선택 이론 (Rational Choice Theory)이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회구조, 정치체제, 경제제도, 문화양식, 종교의식 등이 인간행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탐구하기 위한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연구로 출발했다. 현대 자본주의의 동태와 모순에 대한 여러 사회과학 분과 사이의 통섭적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계급갈등, 시민참여, 사회운동, 복지국가, 거버넌스, 민주주의, 가치사슬,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AI혁명 등을 연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자유주의나 신고전파 경제학의 일방적 논리에 대해선 비판적이다. 세계화가 가져오는 국가간, 지역간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따른 극우 혹은 극좌 포퓰리즘의 등장과 이와 연관된 정치경제 체제변화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고 있다.

SASE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전 세계 50여개 나라의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 런던, 파리, 밀라노, 암스테르담, 교토, 메디슨, 뉴욕, 리오데자네이로, 몬트리올 등을 순회하며 연차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체로 유럽에서 두 번, 미국에서 한 번 개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시아는 일본에서 한 번 열린 정도에 그쳤다. SASE는 공식 학술지로 *Socio-Economic Review*를 2003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분야의 거장이라 할 Roger Hollingsworth, David Marsden, Colin Crouch, David Stark, Michael Piore, Kathleen Thelen, Gary Herrigel, Santos Ruesga, Virginia Doellgast 등이 회장으로 일했다. 필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SASE의 최고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학회의 운영에 참여한 바 있다.

III. 제38차 연차회의 소개

A. 전체 프로그램

SASE 연차회의의 특징은 본 회의에 앞서 사회과학 연구자, 시민사회 활동가, 정부 정책입안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사전회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6월 23일-24일 양일 간 화상으로 사전회의를 했다. 그리고 본 회의는 7월 1일~4일에 열렸다. 세계적인 와인의 산지인 보르도가 지니는 매력으로 인해 78개 국가에서 1,775명이 참석하여 총 2,09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역대 연차회의 중 가장 많은 발표 논문 숫자이다. SASE는 공식적으로 별도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갖지 않는다. 올해는 SASE 회장의 Presidential Address와 주요 이슈를 다루는 Presidential Panel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2개의 Research Network (RN), 21개의 Mini Conference (MC)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Featured Event와 Book Salon으로 구성되었다.

SASE의 현 회장인 Roberto Pedersini (University of Milan)는 7월 2일 목요일 6시에 학회를 대표하여 인사를 겸한 연설을 하였다 ([사진 1] 참조). 그는 유럽의 문명교차가 일어난 보르도에서 학회가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르도 지역이 지니는 명성 덕분에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은 논문이 신청되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에밀 뒤르켐 (E Durkeim)이 Science Po Bordeaux와 인접한 보르도 대학 (University of Bordeaux)에 재직하면서 분업론, 방법론, 자살론 3

[표 1]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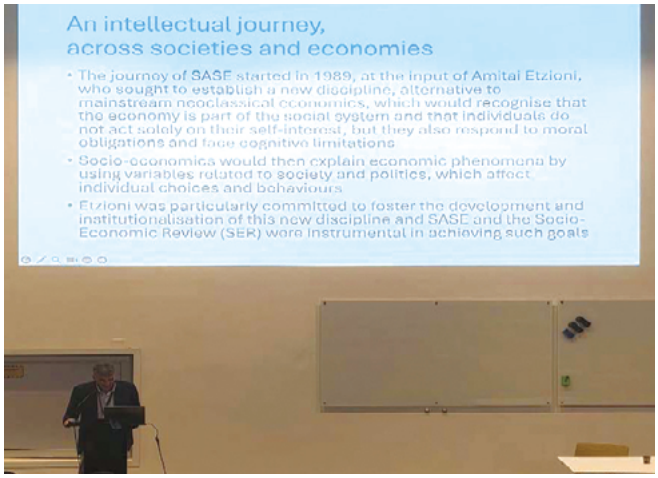
시간	수(7.1)	목(7.2)	금(7.3)	토(7.4)
07:30 - 08:30			**Featured Events:** SASE Annual Member Meeting	
08:30 - 10:00	**Research Network:** C·D·E·G·I·L·M·O·S **Mini Conference:** MC01·MC04·MC09·MC12·MC18·MC19·MC21	**Research Network:** A·B·C·D·E·F·G·H·I·J·K·L·M·N·O·P·Q·R·S·U·V **Mini Conference:** MC01·MC02·MC18 **Book Salon:** A·E·J·K·O	**Research Network:** A·B·D·E·G·H·J·K·L·N·O·P·Q·R·S·U·V **Mini Conference:** MC03·MC07·MC11·MC17·MC19 **Book Salon:** A·K **Featured Events:** Robert Boyer	
09:00 - 10:30				**Research Network:** A·B·C·F·H·J·K·N·P·Q·V **Mini Conference:** MC03·MC05·MC07·MC11·MC17
10:30 - 12:00	**Research Network:** C·D·E·G·I·L·M·O·S·T **Mini Conference:** MC01·MC04·MC06·MC08·MC09·MC12·MC14·MC18·MC21 **Book Salon:** D **Featured Events:** Presidential Panel	**Research Network:** A·B·C·D·E·F·G·H·I·J·K·L·N·O·P·Q·R·S·T·U·V **Mini Conference:** MC01·MC02 **Book Salon:** B·D·H·N **Featured Events:** Philippe Steiner	**Research Network:** A·B·D·E·F·G·H·I·J·K·L·N·O·P·Q·R·S·T·U·V **Mini Conference:** MC03·MC05·MC07·MC11·MC17 **Book Salon:** J·K·P·MC05 **Featured Events:** Featured Panel	
11:00 - 12:30				**Research Network:** A·B·C·H·J·K·N·P·Q·V **Mini Conference:** MC03·MC07·MC11·MC17 **Book Salon:** V
12:00 - 14:15			**Research Network:** Network Organizer Forum Lunch (closed session)	
14:15 - 15:45	**Research Network:** C·D·E·G·I·L·M·O·S·T **Mini Conference:** MC01·MC04·MC06·MC08·MC09·MC12·MC14·MC16·MC18·MC21 **Featured Events:** Presidential Panel	**Research Network:** A·B·C·D·E·F·G·H·I·J·K·L·M·N·O·P·Q·R·S·T·U·V **Mini Conference:** MC01·MC02·MC17 **Book Salon:** E·L **Featured Events:** WAG Forum / SER Meet the Editors	**Research Network:** A·B·D·E·F·G·H·I·J·K·L·N·O·P·Q·R·S·T·U·V **Mini Conference:** MC03·MC05·MC07·MC11 **Book Salon:** J·L·MC11 **Featured Events:** Surbhi Kesar	
16:00 - 17:30	**Research Network:** C·D·E·G·I·L·M·O·S·T **Mini Conference:** MC01·MC04·MC06·MC08·MC09·MC12·MC14·MC15·MC18·MC20 **Book Salon:** Featured L·T **Featured Events:** Featured Book Salon			
16:15 - 17:45		**Research Network:** A·B·C·D·E·F·G·H·I·J·K·L·M·N·O·P·Q·R·S·T·U·V **Mini Conference:** MC01·MC02·MC05·MC17 **Book Salon:** P·T·U·MC05·MC17 **Featured Events:** Lara Monticelli	**Research Network:** A·B·D·E·F·G·H·I·J·K·L·N·O·P·Q·R·S·T·U·V **Mini Conference:** MC05·MC07·MC11 **Book Salon:** E·N·O·T·U·Featured **Featured Events:** Featured Book Salon	
17:45 - 19:15	**Research Network:** C·D·E·G·I·L·M·O·S **Mini Conference:** MC01·MC04·MC06·MC09·MC12·MC15·MC16·MC18·MC20 **Book Salon:** E			
18:00 - 19:30		**Research Network:** A·B·C·D·E·F·G·H·J·K·M·N·O·P·Q·R·S·T·U·V **Mini Conference:** MC02·MC17 **Featured Events:** Presidential Address	**Research Network:** A·B·D·E·F·G·H·J·K·L·N·O·S·V **Mini Conference:** MC03·MC05·MC07·MC11 **Book Salon:** E **Featured Events:** Bordeaux Wines Panel	
20:00 - 22:00		**Featured Events:** Robert Boyer		

Research Network Mini Conference Book Salon Featured Events Times shown in local Bordeaux time

주: 알파벳은 각 Research Network를 의미함

- **A** = Community, Democracy, and Organizations
- **B** = Globaliz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 **C** = Gender, Work and Family
- **D** = Professions and Expertise
- **E** = Comparative Capitalisms
- **F** = KITE: Knowledge, Innovation,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 **G** = Labor Markets,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 **H** = Markets, Firms and Institutions
- **I** = Alternatives to Capitalism
- **J** = Digital Economy
- **K** = Institutional Experimentation in the Regulation of Work and Employment
- **L** = Regulation and Governance
- **M** = Spanish Language
- **N** = Finance and Society
- **O** = Global Value Chains
- **P** =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 **Q** = Asian Capitalisms
- **R** = Islamic Moral Economy and Finance
- **S**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 **T** = Health
- **U** = Postcolonialism and Legacies of Empire
- **V** = Geoeconomics

부작을 출간한 것을 환기했다. 학술조직으로서 SASE의 성장은 사회경제학이라는 패러다임이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다룰 수 있는 포용성과 분석력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SASE의 22개 리서치 네트워크 (RN)는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 정치 및 경제 문제를 연구해 왔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학회지 *Socio-Economic Review*를 통해 발표해 왔다. 지금의 위태롭고 격변하는 세계질서 아래 SASE 연차회의가 기후변화, AI 혁명, 계급변화, 젠더갈등, 알고크라시, 기술파시즘 등의 주제와 관해 냉철한 진단과 유익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1] Roberto Pedersini 회장의 연설

Presidential Panel: I. The Past and Future of Economic Sociology: 7월 1일 (수요일) 10:30-12:00 및 II. Economic Sociology and Transnational Markets: 7월 1일 (수요일) 14:15-15:45.

사회경제학의 주요 패러다임이라 할 경제사회학은 지난 30여 년간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다.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경제를 포섭해야 한다"라는 폴라니 (K Polany)의 관점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만연한 시장만능주의에 맞서고자 했다. 이 중에서 오늘의 경제사회학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세션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특별 세션은 Marc Schneiberg (Reed College)의 사회로 세 명의 경제사회학자들—Marion Fourcade (UC Berkeley), Josh Whitford (Columbia), Christine Musselin (Sciences Po)—이 경제사회학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M Fourcade는 신경제사회학이 1980-90년대에 시장 자유주의와 주류 경제학의 영향력이 확대되던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고 회고했다. 초기 연구는 경제행위의 사회적 배태성, 제도적 경로의존성, 문화와 네트워크를 강조한 합리적 선택 모형과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내재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경제사회학의 연구 범위는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한 금융화, 디지털 플랫폼, 인종자본주의, 심화되는 불평등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어 권력과 국가, 자본주의가 다시 핵심 연구 주제로 부상했다. 그 결과 경제사회학은 정치경제학에 한층 가까워졌으며, 시장이 정치적·제도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형성, 유지,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국가가 시장을 구성하고 재편하는 방식에 관한 경제사회학의 오랜 통찰은 오늘의 세계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osh Whitford는 경제사회학이 새롭게 등장하는 불확실성의 형태를 연구함으로써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불확실성은 경제적 조정과 행위를 설명하는 사회학적 논의에서 핵심적인 개념이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기술적·정치적·환경적 불확실성은 향후 연구를 조직하는 생산적인 중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Christine Musselin은 경제사회학자들이 연구 대상과 방법론을 모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만을 경제사회학의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분석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가격이 중심적인 조정기제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환의 장과 형태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을 더욱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발전시킬 것

을 제안했다.

두 번째 특별 세션은 Valery Yakubovich (Wharton)의 사회로 네 명의 경제사회학자 및 경영학자들—Johanna Mair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Tim Bartley (Georgetown University), Steven Casper (Keck Graduate Institute), Leonard Seabrooke (Copenhagen Business School)—이 참석하여 경제사회학과 초국가 시장자본주의에 대해 토론했다. 경제사회학은 시장이 제도적으로 구획된 단일 국가 차원의 정책과 네트워크를 주로 연구해 왔다. 그렇다면 경제사회학은 국경을 넘나드는, 복잡한 금융, 법률, 생산, 공급망 관리를 요구하는 초국가적 시장을 어떻게 다루는가? 참가자들은 초국가적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모든 참가자들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책임성, 지속가능성, 재분배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내적 제도와 네트워크에 집중하는 기존 경제사회학의 이론과 분석의 틀을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계화가 고용과 부의 분배와 같은 사회학의 핵심 연구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경제사회학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경제사회학은 세계화의 한계에 대한 분석을 넘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국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경제성장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경제사회학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 질문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된 학회장 특별 세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중국으로 대표되는 국가자본주의의 부상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관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학자들에게 아시아의 관점에서 초국가 자본주의의 문제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38차 연차회의의 환영 행사는 7월 1일 수요일 8시에 아름다운 가론강을 내다보는 Hangar 14에서 열렸다. 대략 5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유럽과 북미에서 활동하는 교수와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연구자, 활동가들도 약 20여명 참석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흥미로웠던 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국가의 참가자들이 한국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사진 2] 참조).



[사진 2] 환영 행사에 참석한 한국측 참가자들 *왼쪽부터 J Doucette 교수 (Mancester대), 임현진 교수 (서울대), 김석 정책실장 (민주노총), 양명지 교수 (Hawaii대), 박명준 박사 (노동연구원) 등.

B. 주요 회의 소개

RN E Comparative Capitalisms [Trade Unionism and Economic Change]: 7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10시.

인도, 영국, 캐나다, 한국을 사례로 하는 네 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이 중 박명준 박사 (한국노동연구원)가 “Reconfiguring Social Dialogue in South Korea: Toward a Plural and Multi-Level Regime”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연구자인 박 박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보여주는 새로운 변화를 분석했다. 사회적 대화가 기존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중심의 단일한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국회, 정부

부처, 정당, 산업 및 지역 단위 등 다양한 수준과 공간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기존 사회적 대화의 약화나 위기로 해석하기보다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 기후위기, 산업구조 재편,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전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대화 주체의 다원화와 다층화가 나타나는 배경으로 개혁 의제의 변화, 민주노총의 지속적인 경사노위 불참에 대한 제도적 적응, 강한 정부 등장에 따른 사회적 대화 기능의 변화, 국회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대, 그리고 산업·지역 수준의 중간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 등의 요인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미래는 하나의 대표기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사노위와 국회의 사회적 대화 위원회, 정부 정책협의체, 산업·지역 단위 협의기구 등 서로 다른 대화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조정되는 다중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의와 응답에서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 있는 노동운동의 조건과 전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사회적 대화의 유기적 다원화의 이상과 달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파편화와 약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한국경제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향배와 관련하여 중요한 현상이다.

RN Q Asian Capitalism [Tracking Transitions in Asian Statecraft]: 7월 2일 (목요일) 오후 14시 15분-15시 45분.

세계화 시대에 초국적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역설 아래 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복합 위기 (poly-crisis) 속에서 변화하는 국가 운영 (statecraft)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션은 미-중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 대두,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에 따른 안보위기라는 최근 맥락에서 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짚어보았다.

Thomas Kalinowski (이화여대)는 최근 K-방산의 성공이 단순한 시장 경쟁력의 결과이기보다 지난 세기 이후 형성된 발전국가적 제도 아래 정부-재벌 관계가 재구성되면서 나타난 경로의존적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Guillaume Larrouturou (프랑스 소르본 파리 노르 대학)은 일본 금융감독청의 설립과 이후 진화를 분석하면서 일본의 규제국가적 전환은 발전국가 관료제의 핵심 논리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유럽형 규제국가로의 수렴과는 다르다고 분석하였다. Moisés Balestro (University of Brazilia)는 한국은 발전국가의 진화를 통해 복지국가를 위한 물적, 제도적 조건을 조성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전환이 사회안전망의 분절, 각종 격차의 재생산을 초래하면서 복지국가 전환을 여전한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Dennis McNamara (Georgetown대)는 중국 장쑤성 昆山의 '지역기업가 국가' (local entrepreneurial state)의 사례를 통해 양쯔강 델타지역에서 지역적 수준의 통합과 가치사슬 형성이 산업 발전에서 기여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임현진 (서울대)과 이준구 (한양대)는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Korea-Japan Linkage in Global and Regional Value Chains"에 관해 발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지역 간 분업구조 아래 교역, 투자, 외주에 기반한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 가능했다. 일본이 전후 산업화를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선도했다면, 한국은 그 길을 뒤따라가며 초기에는 일본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기술과 경영을 습득했고 최근에는 전자,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자본집약적 산업화를 통해 일본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구가치사슬

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 일본에 의존해 온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함께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와 외주를 통해 독자적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에서 일본과 중국은 영토분쟁과 역사논쟁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한국은 사드배치 이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투자와 생산 철수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맹-공유' (ally-sharing)라는 정책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와 기술선도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간 네트워크가 전기차와 AI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공급망 블록화와 새로운 기술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의 부상 이후 결속이 약화되었던 한-일간 가치사슬 관계가 재부각되고 있지만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지역내 교역 구조의 반등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필자는 세션을 마무리하는 최종 논평에서 아시아 지역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민주화의 진전, 복지제도의 확충, 시민사회의 성장 등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화의 압력 아래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일본은 신케인주의적 발전국가,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적 발전국가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 3] 세션 발표자들(필자는 사진 촬영)

RN Q Asian Capitalism [Navigating Post-Globaliaztion in East Asia: Democratic Turbulance Amidst Geo-Strategic Realignment in Contemporary South Korea]: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30분.

오늘의 한국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경제적 과제를 다루었다. 이 세션은 2024년 12월의 계엄사태 이후 한국이 겪고 있는 진영대립과 정치적 양극화 아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미중 전략경쟁 아래 한반도의 위상, 북한의 두 국가론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 비상사태의 재발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등 주택정책 등에 대한 소재를 폭넓게 다루었다. 전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성장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함께 논의하면서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다섯 편의 논문 주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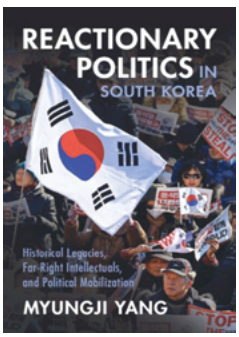
- Jamie Doucette (University of Manchester), Reconsolidating Democracy amidst turbulence: Contemporary challenges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 Jinsoo Lee (University of Manchester), Geo-politics of liberal democracy? Investigating the geopolitics of the Korean far-right and its challenges within the US-China rivalry
- Kevin Gray (University of Sussex),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Capital Logics and the Pitfalls of Liberal Peacebuilding
- Jong-chol An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Emergent Measure in the Case of Emergency?: Comparative Studies of the Two Martial Law Cases in 1979-80 and 2024
- Sung Eun Choi (연세대), How institutional configurations of housing policy shape housing inequality outcomes in East Asia

Featured Panel. Bordeaux's Wines in Crisis: A New Blend of Economics, Ecology and Politics: 7월 3일 (금요일) 저녁 6시-7시 30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는 이탈리아이다. 그러나 명성에서는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앞선다. 와인 애호가라면 평생에 한번, 보르도 와인 중 최고급 5대 포도주인 샤토 무똥 로칠드 (Chateau Mouton Rothschild), 샤토 라피트 로칠드 (Chatoeau Lafite-Rothschild), 쌰토 라뚜르 (Chateau Latour), 샤토 마고 (Chateau Margaux), 샤토 오르리옹 (Chateau Haut_Brion) 중 최소 한두 가지를 맛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세계적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가 최근에는 생산, 판매, 유통의 위기에 빠져 있다. 지난 수십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포도 작황이 들쑥날쑥하면서 가격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남미 등 신세계 와인의 등장의 영향도 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보르도 지역의 와이너리는 농약 사용을 줄이려 하지 않고, 낡아빠진 마케팅 전략을 고수하고, 여전히 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AOC) 방식의 품질 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격 책정, 품질 관리, 유통 개선, 수출 변화 등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생태적 도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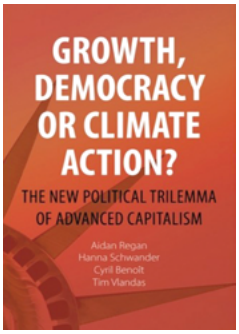
Book Salon에서 논의된 몇 가지 근간 저서를 소개한다.

(1) *Reactionary Politics in South Korea: Historical Legacies, Far-Right Intellectuals, and Political Mobilization*, by Myungji Ya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5.



오늘날 반 (反) 자유주의적인 극우 정치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2024년 12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위헌적 계엄령 선포 이후 시민적 결사와 저항에 의해 민주주의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성없이 더욱 보수화되고, 시민사회가 갈라지면서 일부 청년의 극우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저서는 '왜 일반 시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위주의적 지도자와 계엄령을 지지하는가?' '무엇이 이들을 극단적 사고와 행동으로 이끌고 있는가?'를 물으며 1년 반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 한국의 과거 권위주의 정치 유산과 극우 집단의 사상과 행태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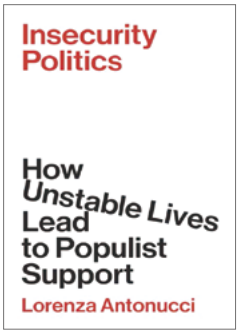
(2) *Growth, Democracy or Climate Action? The Trilemma of Advanced Capitalism*, by Aidan Regan and Hanna Schwander, Agenda Publishing, 2026.



이 저서는 현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핵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 민주적 정통성,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각각을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방식은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자본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현상을 유지 (the Liberal Status Quo)하면서 자기조정적 시장과 관료기술적 제도는 성장줄이기 (degrowth)를 추진하기 어렵다. 거대한 녹색국가 (the Big Green State)는 관료기술적 제도나 과학적 처방을 잘못 위치시킨다. 이처럼 세가지 방식은 조직화된 정치적 갈등의 중심성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자유주의 틀 안에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며 현대 국가의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비교정치경제학이 생태적 이행을 정치의 선차적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 저서는 유의미하다.

(3) *Insecurity Politics: How Unstable Lives Lead to Populist Support*. by Lorenza Antonucci,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6.



이 저서는 정치적 불만을 가져오는 매일 매일의 생생한 경험을 다루고 있다. 포퓰리스트 지도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단순히 아웃사이더로 파악하지 않는다. 오히려 점차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일상적 노동의 현실과 재정적 불안정 사이에서 좌우 포퓰리즘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주로 유럽 국가들의 현실에 비추어서 반 (反) 체제적 정치를 가져오는 미시 수준의 물질적이고 문화적 동학을 분석하여, 일자리에서의 불만과 재정적 불안의식의 증가가 현실정치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고 있음을 논증한다. 복지국가의 구조적 전환과 문화적 전환의 뿌리를 추적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분석을 결합하여 반체제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진화하는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IV. 나가며

올해 유럽의 여름은 뜨겁다 못해 펄펄 끓었다. 열돔(heat dome)으로 인한 40도 안팎의 폭염으로 지금까지 2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에어컨 설치를 두고도 이념공방이 펼쳐졌는데, 우파는 환경규제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공격했고, 좌파는 냉방확대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에어컨 사용하면 '극우'요, 부채 쓰면 '좌파'라는 일차원적 단순 논리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분법 하에서 기후위기의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이 80%가 넘는 것에 비해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23% 정도에 그친다. 오래된 건물에 대한 보존관념과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생태의식이 결합된 결과이다. Science Po Bordeaux의 회의실도 에어컨 가동이 충분치 않아 창문을 열어두고 부채를 사용하며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 4] University of Bordeaux-Montaigne 한국학 교수들과 함께
* 왼쪽 Stephane Couralet 교수 (언어학)
그리고 오른쪽 Damien Peladan 교수 (고려사).

Science Po Bordeaux는 University of Bordeaux-Montaigne에 붙어 있다. 사회학의 3대 비조 중 하나인 E Durkeim이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핵심 저서라 할 「사회분업론」, 「사회학방법론」, 「자살론」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1893; *Les Règles de la méthode sociologique*, 1895; *Le Suicide*, 1897)을 출간했다. 필자는 2019년 가을 학기 이 대학의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South Korea>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7월 3일 오전 아시아문명학부를 방문하여 오랜만에 한국학과의 교수들과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위의 [사진 4] 참조).